

중국 후진타오와 시진핑의 권력 공고화 비교

조영남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이 논문은 후진타오와 시진핑의 권력 공고화를 비교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권력 공고화와 정풍운동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후진타오와 시진핑의 권력 공고화를 세 가지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첫째는 자파 세력의 총원, 둘째는 정풍운동과 반부패운동의 추진, 셋째는 자기 통치이념의 공산당 지도이념화이다. 후진타오와 시진핑은 개혁기 신세대 지도자로서 유사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 권력을 공고히 했고, 그 결과 총서기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개혁기에는 '권력승계의 제도화'와 함께 '권력 공고화의 제도화'가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후진타오, 시진핑, 권력 공고화, 공청단파, 상하이방, 정풍운동, 반부패운동

I. 서론

2002년 공산당 16차 당대회 이후 후진타오(胡錦濤)가 총서기로 선출되었을 때, 그는 국내외로 유명인사가 아니었다. 그래서 해외 언론에서는 “후가 누구야(Who is Hu?)”라는 말이 유행했다(Brown, 2012: xix). 또한 공산당 16차 당대회를 분석한 대부분의 중국 전문가들은 향후에 후진타오가 총서기로서 제대로 행세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쩌민이 총서기직을 이양하면서도 중앙군사위원회(중앙군위) 주석직은 유지했기 때문에 후진타오는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정치국 상무위원의 절대 다수가 상하이방이기 때문에 공청단파 출신의 총서기인 후진타오가 자신의 뜻대로 정책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조건이었다(조영남, 2006: 137-161; Ewing, 2003; Fewsmith, 2003; Zheng, 2005).

그런데 2004년 무렵에 들어 후진타오에 대한 평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먼저 물러날 것 같지 않았던 장쩌민이 중앙군위 주석직을 사임하면서 후가 군권을 장악했다. 그 결과 2005년부터 후진타오는 자신의 이름으로 대만 방침과 군사사상을 제시할 수 있었다(Bo, 2007: 349-367). 또한 당시에 후진타오와 원자바오는 거시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상하이방(上海幫)과 대립했는데, 이들의 방침이 최종 결정되면서 승자가 되었다. 상하이방의 핵심 인물이었던 쟡칭홍(曾慶紅), 자칭린(賈慶林), 황취(黃菊) 등이 후진타오 편에 섰던 것이다. 그래서 그해 9월에 개최된 공산당 16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6기 4중전회)는 “후진타오의 대승리”로 평가되었다(寇健文, 2011: 221-231; Wang, 2006). 후진타오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외교와 군사 분야에서도 권위가 확립되었다(Lai, 2005). 반면 장쩌민의 권력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상하이방의 응집력과 영향력도 마찬가지였다(Bo, 2010: 132-135).

시진핑(習近平)의 권력 공고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 단적으로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그는 모두 12개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헌법 및 당헌이 규정한 직위(공산당 총서기, 중앙군위 주석, 국가 주석)와 각종 영

도소조가 포함된다(Chan, 2017). 처음부터 시진핑의 권력기반은 장쩌민과 후진타오보다 공고했다(조영남, 2013: 99). 그 결과 집권 3년차인 2014년에 들어서 일부 전문가와 언론은 집단지도 체제가 약화되고 시진핑 일인체제가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다수의 학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런 논의 자체만으로도 시진핑의 권력이 매우 빠르게 공고화되었음을 보여 준다(양갑용, 2014; 이정남, 2017; 조영남, 2015a; Lee, 2017; Li, 2016: 12-13; Wang and Zeng, 2016).

이 논문은 후진타오와 시진핑의 권력 공고화 과정과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무명인사에 가까웠던 후진타오는 불과 2~3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여 총서기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성공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학계와 언론은 후진타오를 ‘약한 총서기,’ 시진핑을 ‘강한 총서기’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견해는 시진핑 시기에 나타난 일부 현상, 예를 들어, 최고위급 지도자의 처벌, 시진핑의 다수 직위 보유와 광범위한 개인 선전을 가지고 내린 판단이지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은 아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권력 공고화 과정과 그 결과를 분석해야 한다. 이 논문이 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중국 정치에서 권력 공고화가 무엇을 의미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이는 사례 분석을 위한 토대 작업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이에 기초하여 후진타오와 시진핑이 어떻게 권력을 공고하게 구축했는지를 자세히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후진타오의 권력기반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견고하게 구축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진핑이 권력 공고화를 위해 걸어온 길이 후진타오가 걸어온 길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II. 권력 공고화와 정풍운동

중국에서 최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군 통수권, 이념적 권위, 인적 관계망(파벌)을 장악해야 한다.¹ 권력 공고화란 이들이 이런 권력원을 확보하는 과정과 결과를 의미한다.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원은 군 통수권이다.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이 다른 혁명가들보다 더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군 통수권자였기 때문이었다. 장쩌민도 덩샤오핑을 모방하여 순차적인 권력 이양을 꿈꾸면서 ‘원로 정치’를 이어갈 생각이었다. 2002년 공산당 16차 당대회에서 후진타오에게 공산당 총서기직을 이양하면서도 중앙군위 주석직을 2년 동안 유지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당시의 권력구조는 ‘두 주석 체제’로 불렸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는 총서기인 후진타오가 아니라 중앙군위 주석인 장쩌민이었다. 결국 장쩌민이 중앙군위 주석직을 넘긴 2004년 공산당 16기 4중전회에서 실질적인 권력승계가 이루어졌다 (조영남, 2006: 165-168).

그런데 덩샤오핑 이후 시기에는 총서기가 중앙군위 주석을 겸직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 행사 여부가 총서기의 권력 공고화와 관련하여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었다(단 장쩌민이 2년 동안 중앙군위 주석을 연장한 경우는 예외다). 다시 말해 군 출신의 중앙군위 부주석이나 다른 민간 지도자가 총서기의 군 통수권에 도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따라서 권력 공고화와 관련하여 이 문제를 별도로 분석할 필요는 없다. 다만 총서기가 중앙군위 주석으로서 군을 실질적으로 장악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 즉 총서기는 중앙군위 주석으로서 군을 실질적으로 통솔할 수 없었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Ji, 2002; Lampton, 2014: 175-177).

군 통수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념적 권위다. 혁명과 국가 건설 과정에서 최고 지도자는 새로운 혁명 철학과 사상을 수립한 사상가이자 이론가여야

1. 이 장의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조영남(2017b)의 제2장을 참고할 수 있다.

만 했다. 마오쩌둥은 이 점을 특히 강조했다. 즉 ‘당의 중요 지도자는 당의 이념적 및 이론적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Zheng, 1997: 38). 이런 면에서 1945년 공산당 7차 당대회에서 ‘마오쩌둥 사상’이 공산당의 지도이념으로 결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마오가 군 통수권을 장악한 데 이어 이념적 권위까지 확보함으로써 그 누구도 감히 마오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덩샤오핑 이후 시대의 지도자에게도 이념적 권위는 매우 중요했다. 이들에게는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이 보유했던 카리스마적 지도력이 없었고,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이념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새로운 이념의 창시를 매우 중시했다(Zheng, 2010: 83-86). 2002년 공산당 16차 당대회에서 지도이념이 된 ‘삼개대표(三個代表) 중요사상’과 2007년 공산당 17차 당대회에서 지도이념이 된 ‘과학적 발전관’은 이념적 권위를 수립하기 위해 장쩌민과 후진타오가 노력한 결과물이었다. 시진핑도 2013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이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최고 지도자의 세 번째 권력원은 지지 세력 혹은 파벌이다. 후진타오와 시진핑에게는 중앙과 지방의 요직에 자기 세력을 충원해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 총서기라는 직위만으로는 최고 지도자로서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화궈핑(華國鋒), 후야오방(胡耀邦), 자오쯔양(趙紫陽)의 몰락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래서 후진타오와 시진핑은 장쩌민이 그랬던 것처럼 총서기라는 직위가 부여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사권을 행사했고,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요직에 지지 세력을 충원했다(寇健文, 2011: 327; Lam, 1999: 366). 상하이방(上海幫), 태자당(太子黨), 공청단파(共青團派) 같은 파벌은 이렇게 해서 등장했다.

한편 정풍운동(整風運動)은 최고 권력자가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최초의 정풍운동은 옌안에서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약 4년 동안 사상교육 운동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당시 목표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왕밍(王明) 좌경노선’의 청산이고, 다른 하나는 70만에 가까운 신입 당원의 의식 제고였다. 옌안 정풍운동은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120여 명의 최고위급 간부가 참여하여 정치노선을 집중 토론했다. 2단계

에서는 일반 당원을 대상으로 사상학습 운동이 전개되었다. 3단계에서는 역사 문제가 토론되었다. 1944년 5월에 개최된 공산당 6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6기 7중전회)에서 〈약간의 역사문제 결의〉가 통과되면서 정풍운동은 일단락되었다. 공산당의 평가에 의하면, “〈역사결의〉의 통과는 연안 정풍운동이 승리로 끝났다는 표지다(宋曉明, 1996: 348-351; 中共中央黨史研究室, 2011: 649-651).”

연안 정풍운동의 절차와 방식은 이후의 다른 정풍운동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첫째는 관련 문건의 학습이다. 둘째는 자기 조사와 검토서 작성이다. 당원들은 개인의 사상과 활동을 해당 지역 및 단위의 업무와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조사 검토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야 한다. 셋째는 비판과 자기 비판이다. 넷째는 인식 제고와 경험 총괄이다. 이는 정리 단계로 당원의 사상 인식을 통일하고, 이를 토대로 당성을 강화하고 업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결의를 다진다(郭德宏 外, 1999: 163-174; 宋曉明, 1996): 340-342; 中共中央黨史研究室, 1991: 609-617; 中共中央黨史研究室, 2011: 614-615).

개혁기에도 정풍운동은 이름과 내용을 바꾸어 계속되었다. 예를 들어, 1983년부터 1986년까지 3년 동안 문화대혁명의 잔존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정당운동(整黨運動)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핵심은 ‘삼종인(三種人: 세 가지 종류의 사람)’, 즉 문혁 시기에 린바오와 사인방을 추종했던 사람, 파벌 사상이 엄중한 사람, 각종 파괴 활동을 일삼았던 사람을 청산하는 일이다. 정당운동은 1단계로 중앙과 성급(省級) 단위, 2단계로 지급(地級) 및 현급(縣級) 단위, 3단계로 기층단위에서 전개되었다. 이를 위해 후야오방을 책임자로 하는 중앙 정당공작 지도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정당운동의 결과 33,896명의 당원이 제명되고, 90,069명이 등록 거부되었으며, 145,456명이 등록 유보되었다. 당규 처분 등 각종 징계를 받은 당원은 184,071명이었다. 영도간부 중 50% 정도가 정당운동을 통해 정리되었다(조영남, 2016b: 78-85).

개혁기에 정풍운동은 반부패(反腐敗) 운동과 함께 전개되었다. 이때 주요 정적들이 부패 혐의로 처벌받았다. 예를 들어, 장쩌민은 1993년부터 1998년까지 5년 동안 반부패운동을 전개했다. 그 과정에서 1995년에 베이징시 당 서기 천시통(陳希同)이 부패 혐의로 구속되었다. 천시통은 베이징방(北京幫)

의 대표 인물로, 장쩌민의 권위에 공공연하게 도전한 것으로 유명했다. 후진타오도 2003년부터 반부패운동을 전개했고, 2006년에는 상하이시 당서기 천량위(陳良宇)가 부패 혐의로 구속되었다. 시진핑의 반부패운동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저우융강(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 링지화(令計劃) 전 정치국원 겸 중앙판공청 주임, 귀보슝(郭伯雄)과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정치국원 겸 중앙군위 부주석이 구속된 것은 유명하다.

이상의 내용을 기초로 아래에서는 후진타오와 시진핑이 어떻게 권력을 공고히 했는지를 자세히 분석할 것이다. 이들의 권력 공고화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자파 세력의 충원, 둘째는 정풍운동과 반부패운동, 셋째는 이념적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과 선전이다. 이 세 가지는 대체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총서기가 된 직후 자파 세력을 중요 직위에 충원하여 권력기반을 다진다. 그 다음에 이들을 동원하여 정풍운동과 반부패운동을 추진하여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총서기의 권위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성과를 기초로 이론적 권위를 수립하기 위한 교육과 선전에 매진한다.

III. 후진타오의 사례 분석

많은 전문가들은 후진타오가 권력기반이 취약하여 총서기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 상황을 세밀히 분석하면 이런 인식과 평가가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1. 공청단파의 등장

후진타오가 후계자로 등장한 것은 1992년 공산당 14차 당대회 때였다. 그는 덩샤오핑에 의해 후계자로 지명되어 중앙위원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표 1〉 중국공산당 역대 중앙위원(후보 포함) 중 공청단파의 규모와 비율

	14기 중앙위원 (1992~97년)		15기 중앙위원 (1997~2002년)		16기 중앙위원 (2002~07년)		17기 중앙위원* (2007~12년)	
	위원	후보	위원	후보	위원	후보	위원	후보
공청단 출신자	11	12	15	19	24	34	41	41
총인원수	189	130	193	151	197	158	204	167
비율	6%	9%	8%	13%	12%	22%	20%	26%
총수/총비율	23/9%		34/9%		58/16%		82/22%	

자료: 寇健文(2007: 69); Bo(2010: 148).

‘두 단계’ 승진했던 것이다. 당내 보직은 중앙 서기처 상무서기와 중앙당교 교장으로 주로 공산당 업무를 주관했다. 특히 후가 중앙당교 교장을 맡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중앙당교는 국장급(地廳級) 이상의 영도간부를 교육하는 곳으로, 중앙당교 교장은 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후진타오는 1997년 무렵부터, 즉 그가 정치국 상무위원이 된 지 5년이 지난 무렵부터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공청단 출신의 간부를 중앙과 지방의 요직에 충원하기 시작했다(Wang, 2006: 105-106). 이렇게 해서 공청단파가 중요한 파벌로 등장할 수 있었다.

2002년 공산당 16차 당대회 직후 후진타오는 모두 35명의 공청단파 간부를 장차관급(省部級) 직위에 임명했다. 먼저 중앙 당정기관에 7명의 공청단파가 충원되었다. 선웨이웨(瀋躍躍) 중앙 조직부 부부장, 우아이잉(吳愛英) 국무원 사법부 부장, 리쉐쥐(李學舉) 민정부 부장과 리리궈(李立國) 부부장, 류펑(劉鵬) 국가체육총국 국장, 즈수핑(支樹平) 국가질량총국 국장, 차이우(蔡武) 신문판공실 주인이 바로 이들이다. 또한 새롭게 임명된 19명의 성급 지방 당서기 중 7명이 공청단파였다. 리커창(李克強: 랴오닝성), 리위안차오(李源潮: 장쑤성), 첸윈루(錢運錄: 헤이룽장성), 왕양(汪洋: 충칭시), 장바오순(張寶順: 산시성), 장칭리(張慶梨: 티베트자치구), 류치바오(劉奇葆: 광시자치구)가 그들이다. 마지막으로 당시 새로 선임된 23명의 성장(시장·주석) 중에서 8명이 공청단파였다(Bo, 2007: 393-397).

그 결과 후진타오의 집권과 함께 공산당 중앙위원 중에서 공청단파가 차

〈표 2〉 공청단파 장차관급 인사의 분포 비교: 2002년과 2006년

		2002년		2006년	
중앙 부서 부장/부부장	공산당	10	30	15	40
	국무원	20		25	
성급 지방 서기/성장	서기	3	6	9	17(1인 겸직)
	성장	3		9	
성급 지방 부서기/부성장	부서기	33	47	32	59
	부성장	14		27	

자료: 寇健文(2007: 71-72, 73-74).

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표 1〉에 따르면, 공청단파 중앙위원은 후진타오가 총서기에 선출된 2002년 16차 당대회부터 급증했다. 즉 14기(1992~97년)와 15기(1997~2002년) 중앙위원 중에서 공청단파 비율은 9%에 불과했는데, 16기(2002~07년) 중앙위원 중에서는 그 비율이 16%, 17기(2007~12년) 중앙위원 중에서는 그 비율이 22%로 급증했다. 이렇게 되면서 공산당 16차 당대회부터는 중앙위원 수를 놓고 볼 때 공청단파가 최대 파벌이 되었다.

공청단파 간부의 증가는 중앙기관과 지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2〉는 2002년과 2006년 두 시기에 공청단파가 중앙과 지방의 장차관급에서 차지하는 규모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후진타오 시대에 들어 공청단파 인사가 중앙과 지방 모두에서 급증했다. 예를 들어, 중앙부서(공산당과 국무원)의 경우, 장차관급 인사는 2002년 30명이었는데 2006년에는 40명으로 증가했다. 성급 지방 당서기와 성장도 2002년에는 6명에 불과했지만 2006년에는 17명으로 급증했다. 비슷하게 성급 지방 부서기와 부성장도 2002년 47명에서 2006년 59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여러 가지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 후진타오가 공청단파를 충원하려고 노력한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후진타오는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요직에 공청단파를 대규모로 충원했다. 그 결과 시간이 가면서 공청단파는 여러 파벌 중에서 수적으로 최대 파벌로 성장했다. 반면 장쩌민의 상하

〈표 3〉 중국공산당 16기 및 17기 중앙위원(후보 포함) 중 각 파벌의 규모 변화

	16기 중앙위원(후보포함) (2002-2007년)		17기 중앙위원(후보포함) (2007-2012년)	
	상하이방	위원 13 후보 4	17	위원 8 후보 1
태자당	위원 15 후보 5	20	위원 22 후보 4	26
공청단파	위원 24 후보 33	57	위원 41 후보 41	82

자료: Bo(2007: 141, 151, 183; 2010: 135, 139, 148).

이방은 후진타오 시대에 들어 중앙위원의 규모 면에서 급속히 쇠락했다. 〈표 3〉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공산당 16기 중앙위원 중에서 상하이방은 17명이었는데, 17기 중앙위원 중에서는 9명으로 급감했다.

그런데 중앙과 지방의 요직에 공청단파가 대규모로 충원되었다고 해서 후진타오가 총서기로서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후진타오는 비록 수적으로는 최대 파벌의 지도자였지만 권력의 집중도와 강도 면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9인의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서 후진타오는 소수파였다. 즉 9인 중 최소 5인(쑹칭훙, 우방궈, 황궈, 자칭린, 리창춘)이 상하이방이었다. 비슷하게 국무원 10인의 지도자(총리·부총리·국무원) 중에서 상하이방이 최소 5인(황궈, 쑹페이옌, 후이량위, 화젠민, 천즈리)이었다. 군 지도부의 경우, 장쩌민이 중앙군위 주석에 유임되면서 ‘장쩌민의 장군’으로 채워졌다. 따라서 군에는 후의 세력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조영남, 2006: 147). 이런 이유로 집권 1기(2002~07년)에 후진타오는 원자바오 총리와의 연대를 통해, 또한 2004년 장쩌민이 중앙군위 주석을 사임한 후에는 쑹칭훙과의 협력을 통해 권력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후진타오 시대를 ‘후원신정(胡溫新政)’(후진타오와 원자바오의 새로운 정부)이라고 불렀던 것은 이 때문이다.

후진타오에게 다행스러웠던 점은 2007년 공산당 17차 당대회 이후 이런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사실이다. 먼저 2004년 장쩌민이 중앙군위 주석직에서

물러나면서 후가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의 세력 분포에 변화가 생겼다. 9인의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 리커창이 가세하면서 후진타오 세력은 3인(후진타오, 원자바오, 리커창)으로 증가했다. 또한 25인의 정치국원 중 공청단파는 8인(왕러쑤, 왕자오궈, 류윈산, 류옌둥, 리커창, 리위안차오, 왕양, 후진타오)으로 상하이방의 9인과 호각지세를 이루었다. 특히 공산당의 주요 부서인 중앙 판공청 주임(링지화), 조직부(리위안차오), 선전부(류윈산)에 공청단파 인사가 임명된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조영남, 2006: 111-112; 寇健文, 2001: 243).

이렇게 하여 빠르게 보면 2004년 무렵부터, 늦게 보아도 2007년 공산당 17차 당대회 이후부터 후진타오는 총서기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성공했다. 이런 점에서 후는 그렇게 허약한 총서기가 아니었다.

2. '선진성 활동'과 반부패운동

후진타오는 권력 공고화 과정에서 정풍운동과 반부패운동을 적절히 활용했다. 다만 여러 가지의 국내외 상황으로 인해 원래 계획처럼 이런 운동이 강력하게 추진되지는 못했다. 특히 반부패운동에서 처벌된 장차관급 고위간부는 많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후진타오는 장쩌민이나 시진핑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권력이 약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1) 선진성 활동

후진타오 집권 10년 동안에는 두 번의 대규모 정풍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는 장쩌민 시기보다 한 번 더 많은 것이다. 첫째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삼개대표 중요사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산당원 선진성(先進性) 유지 교육 활동'(약칭으로 '선진성 활동')이다. 둘째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된 '과학적 발전관 학습 실천 활동'(약칭으로 '과학적 발전관 활동')이다.

선진성 활동은 2000년 무렵에 모색되었고, 실시는 2002년 공산당 16차 당 대회에서 결정되었다. 주된 이유는 공산당 간부의 사상과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000년 상반기에 공산당 중앙 조직부는 전국적으로 30만 명의 당원을 대상으로 이들의 정치사상 상황을 조사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반 당원뿐만 아니라 영도간부들도 당 규율을 위반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들의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확신이나 당원으로서의 사명감도 매우 낮았다(曾慶紅, 2006; Fewsmith, 2005).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산당의 장기집권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공산당 지도부 내에 형성되었다.

먼저 2003년에 일부 지역과 당정기관을 대상으로 정풍운동이 시험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여 2004년 10월에 공산당 중앙 명의로 선진성 활동의 실행에 대한 통지를 하달했다. 이에 따르면, 정풍운동은 2005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1단계는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로 중앙 및 지방의 과장급(縣處級) 이상의 당정기관과 사업단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2단계는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도시 지역의 기층단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3단계는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농촌 지역의 기층단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방법은 이전 정풍운동과 같다. 먼저 집중 학습이 실시된다. 학습은 중앙당 교와 지방당교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또한 각급 당위원회가 학습모임을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재에는 후진타오의 글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분석과 평가다. 모든 당원은 학습한 내용에 기초하여 자신의 사상과 활동에 대한 자기 검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영도간부들은 민주생활회, 일반 당원들은 조직생활회를 개최하여 비판과 자기비판을 전개한다. 마지막으로 개선과 향상이다. 당원 개인과 조직은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출하고, 그것을 집행한 후에 결과를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정풍운동을 지도하기 위해 중앙에는 공산당원 선진성 유지 교육 활동 영도소조가 설치된다(中共中央, 2006).

선진성 활동의 실제 전개 상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모두 7,080만 명의 당

원과 350만 개의 당조직이 참여했다. 정풍운동 과정에서 13만 개의 새로운 공산당 조직이 건설되었고, 그 동안 활동이 중지되었거나 미진했던 15만 6천 개의 공산당 조직이 개선되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약 300만 명의 각종 공산당 조직의 책임자에 대한 집중 교육이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풍운동에서는 모두 44,738명의 당원이 제명되었다(Shambaugh, 2008: 130). 종합하면, 정풍운동을 통해 공산당 중앙의 권위가 높아지고, 공산당 간부와 조직의 문제점이 일부 해결되었다. 또한 후진타오의 연설이 학습 교재로 사용되면서 그의 권위도 높아졌다.

과학적 발전관 활동은 2007년 공산당 17차 당대회에서 결정되었다. 17차 당대회에서 〈당헌〉 수정을 통해 ‘후진타오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적 발전관이 공산당의 지도이념으로 결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2008년 9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전 당원과 조직이 과학적 발전관을 학습하고 실천하는 정풍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는 개별 당원과 당조직이 새로운 당 지도이념으로 채택된 과학적 발전관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한마디로 말해 후진타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정치운동이었던 것이다.

먼저 2008년 2월부터 8월까지 중앙과 지방의 23개 당정기관 및 지역을 대상으로 정풍운동이 시험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세부안이 마련되어 2008년 9월 정풍운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에도 정풍운동은 3단계로 나누어 전개되었다. 1단계로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중앙 당정기관과 성급 당정기관을 대상으로 정풍운동이 전개되었다. 2단계로 2009년 3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지방의 사현급 당정기관을 대상으로, 3단계로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지방의 향진 당정기관을 대상으로 정풍운동이 전개되었다.

정풍운동의 실행 방법도 이전과 같았다. 먼저 집중 학습과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때 과학적 발전관과 관련된 공산당의 정책 문건과 후진타오의 연설이 주요 교재로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당원의 사상과 활동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때 민주생활회(영도간부) 혹은 조직생활회(일반 당원)가 개최되어 비판과 자기비판이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시정과 집행이 있었다.

이 단계에서는 제기된 문제가 해결되었다. 한편 정풍운동의 지도기구로 중앙에 ‘과학적 발전관 심화 학습 실천 활동 영도소조’가 설치되어 시진핑(서기처 상무서기)이 조장, 리위안차오(조직부장)가 부조장을 맡았다(中共中央, 2009; Miller, 2009).

정풍운동은 이것으로 끝났지만 유사한 학습활동은 계속되었다. 2010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학습형 정당 건설 조직 활동’이 전개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과학적 발전관뿐만 아니라 후진타오가 제기한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학습하고 실천하는 활동이 전개되었다. ‘당의 선진성과 함께 ‘당의 순결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슬로건이 이때 제기되었다. 또한 과학적 발전관 활동을 계승하여 2010년 하반기부터 2012년 공산당 18차 당대회 개최 전까지 ‘선진 창조와 우수 쟁취 활동’이 전개되었다.

2) 반부패운동

후진타오는 공산당 16차 당대회가 끝난 직후인 2003년부터 반부패운동을 추진했다. 다만 정책 추진 방식은 장쩌민 시대와는 조금 달라서 제도 개선을 통한 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2003년 12월에 〈공산당 당내 감독 조례〉가 제정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로 당내 법규의 제정 통계를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109건의 법규가 제정되었는데, 이 중 부패 척결과 관련된 규정이 53건으로 전체 법규의 49%를 차지했다(中共中央辦公廳法規室 外, 2009). 이는 후진타오 시기에 공산당이 법률 제정을 통한 부패 예방에 주력했음을 보여준다.

후진타오 시기의 반부패운동이 얼마나 강도 높게 진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부패운동을 통해 처벌된 당원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그런 자료를 구할 수 없다. 2007년 공산당 17차 당대회부터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상세한 통계가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반부패운동의 강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 불완전한 통계지만, 중국의 한 연구자의 조사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 동안 모두 72인(매년 8인)의 장차관급 고위간부가 부패 혐의로 처벌되었다(72名, 2012). 이는 장쩌민 집권 10년(1992~2002년) 동안 176인(매년 17.6

인)의 장차관급 고위간부가 처벌된 것에 비해 반도 안 되는 수치다(〈표 5〉 참조). 이로 인해 후진타오에게는 ‘악한 총서기’라는 인상이 생겼다.

후진타오의 반부패운동이 미약했던 데에는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었다. 장쩌민의 상하이방이 자파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후의 반부패운동에 반대했을 가능성이 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어려운 상황이 연속해서 발생하면서 부패 척결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사실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는 공산당의 최대 과제였고,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만 했다. 그런데 2008년 3~4월에는 소수민족 지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고, 그해 5월에는 쓰촨성에서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낸 리히터 규모 8.0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치 사회의 안정이 급선무가 되었고, 이에 조금이라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책은 중단되었다(조영남, 2013: 184-187). 또한 2008년 하반기에는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후진타오는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이런 이유로 2008년부터 반부패운동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던 것이다.

반면 반부패운동을 통해 후진타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경쟁 세력을 제거하고 다른 고위 당정간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권력 공고화의 목적은 달성했다. 2007년 상하이시 당서기 천량위가 구속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천량위는 상하이방의 대표 인물로, 2004년부터 국무원이 추진한 긴축정책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중앙의 권위’(즉 후진타오의 권위)에 도전했다. 후진타오가 이를 부패 혐의로 구속함으로써 중앙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었다. 또한 2012년 충칭시 당서기였던 보시라이(薄熙來)가 부패 혐의로 구속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론

덩샤오핑 시대와 장쩌민 시대에 중국은 경제 성장 최우선 전략을 추진했다. 반면 후진타오는 민생 개선과 지역 불균형, 환경 악화, 빈부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했다. ‘종합적이고 조화로우며 지속 가능

한 발전관'이 바로 그것이다(조영남, 2006: 197-198). 후진타오는 이를 '과학적 발전관'으로 부르면서 공산당의 지도이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2003년 무렵부터 『인민일보』는 이를 '후진타오의 중요사상'으로 칭하면서 선전 활동을 전개했다(Bo, 2007: 261-273). 그 결과 2007년 공산당 17차 당대회에서 과학적 발전관이 공산당의 지도이념으로 결정될 수 있었다. 후진타오도 이제 이념적 권위를 갖게 된 것이다(조영남, 2009: 130-136).

후진타오가 과학적 발전관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2003년 8-9월에 장시성을 시찰할 때였다. 또한 2003년 10월 공산당 16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6기 3중전회)에서 통과된 문건에는 경제체제 개혁의 지도사상 및 원칙으로 '사람을 근본으로 하고 전면적이고 협조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관'이 '균형발전론'과 함께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문건은 아직 공식적으로 과학적 발전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당시에 '과학적'이란 말이 빠진 것은 공산당 지도부 내에 이를 반대하는 세력(즉 상하이방)이 있었기 때문이다(Bo, 2007: 268).

한편 후진타오는 과학적 발전관과 함께 '조화사회론(和諧社會論)'을 제기했다. 이는 대외적으로 '조화세계 건설론'과 쌍을 이루는 개념으로 후진타오의 국정이념을 잘 보여주었다. '조화'라는 말이 공산당의 문건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02년 16차 당대회에서 장쩌민이 발표한 정치보고에서였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이라는 명칭 하에 내용을 갖춘 개념으로 등장한 것은 2004년 9월 공산당 16기 4중전회의의 문건을 통해서였다. 이 문건에는 조화사회론과 함께 과학적 발전관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등장했다(中共中央, 2004: 1-39).

이후 조화사회론이 더욱 체계화된 모습으로 등장한 것은 2005년 2월 중앙당교에서 개최된 '장관급 주요 지도간부의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 능력 제고를 위한 연수반'에서 행한 후진타오의 연설을 통해서였다. 여기서 후진타오는 조화사회 건설이 중대 임무고, 중앙 및 지방의 각급 공산당은 이를 당면 임무로 간주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胡錦濤, 2016: 273-299). 이를 이어 2005년 10월 공산당 16기 5중전회에서 채택된 문건에서는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론이 함께 제시되었다. 여기서 과학적 발전관은 주로 경제

발전 문제를 다루었고, 조화사회론은 사회 모순 및 사회 문제 해결에 집중되었다(本書編寫組, 2005: 1-36).

이후 2006년 10월에 개최된 공산당 16기 6중전회에서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이 단독 의제로 토의되었다. 이때 채택된 문건에서는 조화사회의 성격, 여섯 가지의 지도사상,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아홉 가지의 주요 임무, 그리고 조화사회 건설의 여섯 가지의 원칙이 자세히 제시되었다. 또한 여기에는 과학적 발전관에 대한 새로운 규정도 들어있었다. 이에 따르면 과학적 발전관은 중국이 조화사회 건설을 추진하는데 준수해야 하는 하나의 원칙이다(中共中央, 2007: 648-671).

이처럼 후진타오는 집권 초기부터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론을 국정 이념으로 제시하면서 새로운 발전전략을 추진했다. 그런데 공산당 17차 당대회가 가까워지면서 조화사회론이 아니라 과학적 발전관이 더욱 강조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공산당 17차 당대회에서는 과학적 발전관만이 지도이념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과학적 발전관이 삼개대표와 같은 급의 지도이념이 된 것은 아니었다. 수정된 <당헌>은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삼개대표 중요사상을 자기의 행동지침으로 삼는다.”고만 말했다. 다시 말해, 과학적 발전관은 “공산당의 행동지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과학적 발전관은 ‘총론’의 다른 곳에서 당의 지도이념이라고 언급되었다(本書編委會, 2012: 444, 446). 이후 5년 뒤인 2012년 공산당 18차 당대회에서 <당헌> 수정을 통해 과학적 발전관이 “공산당의 행동지침”에 포함되면서 삼개대표와 같은 지위로 격상되었다(本書編委會, 2012: 1).

그런데 후진타오가 주도한 조화사회론이 지도이념이 되지 못한 이유, 과학적 발전관이 삼개대표와 같은 급의 지도이념이 되지 못한 이유는 간단하다. 즉 총서기로서 후진타오가 장쩌민만큼 강력하게 권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당정군의 최고 기구에서 후진타오 세력이 열세였던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그렇다고 후가 이념적 권위를 갖지 못한 허약한 지도자는 아니었다. 집권 5년 만에 과학적 발전관이 지도이념이 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장쩌민은 집권 13년만에야 삼개대표 중요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만들 수 있었다.

IV. 시진핑의 사례 분석

2012년 공산당 18차 당대회 이후 총서기로 선출된 시진핑은 전임 지도자들에 비해 더욱 빠르고 강력하게 권력기반을 다져갔다. 이런 면에서 일부 중국 전문가와 언론들은 시진핑의 권력 강화를 예외로, 즉 장쩌민이나 후진타오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실제 권력 공고화 과정을 분석해보면, 시진핑도 전임 지도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 시진핑 세력의 형성

시진핑도 총서기가 된 직후 총서기의 권한을 이용하여 자파 세력을 중앙과 지방의 요직에 충원했다. ‘시진핑 사람’으로 공산당 계통에는 리잔수(栗戰書) 중앙판공청 주임, 덩쉐샹(丁薛祥) 시진핑 주석 판공실 주임, 황쿤밍(黃昆明) 중앙 선전부 부부장, 천시(陳希) 중앙 조직부 부부장, 천이신(陳一新) 개혁 영도소조 판공실 부주임, 허이팅(何毅亭) 중앙당교 부교장, 양샤오두(楊曉渡)와 리슈레이(李書磊) 중앙기위 부서기가 있다. 경제 분야에는 류허(劉鶴) 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과 수궈펑(舒國增) 부주임,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이 있다. 공안 및 군 계통에는 차이치(蔡奇) 중앙 국가안전위원회 판공실 부주임(현재는 베이징시 당서기), 푸전화(傅政華)와 명칭핑(孟慶豐) 국가안전부 부부장, 왕샤오홍(王小洪) 베이징시 공안국 국장, 중샤오쥘(鐘紹軍) 중앙군위 판공청 부주임이 있다(신경진, 2015; Huang, 2016).

그런데 시진핑이 충원한 사람을 보면, 그에게는 특정한 파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가 태자당인 것은 맞지만, 태자당은 응집력과 지향성 면에서 하나의 파벌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실제로 시진핑은 태자당 출신보다 자신과 같은 고향이나 지역 출신, 같은 학교 출신, 같은 근무지 출신자를 충원했다. 이를 세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아버지의 고향이고

〈표 4〉 ‘시진핑 세력’의 증가: 장차관급 인사(2016년 1월~2017년 7월)

		시진핑 사람(17인)		시진핑 측근의 사람(14인)		소계
중앙	공산당 부장/부부장	2	8	1	3	11
	국무원 부장/부부장	6		2		
지방(省)	당서기/부서기	6	9	3	11	20
	성장/부성장	3		8		

자료: Gan(2017b).

하향(下鄉) 경험이 있는 산시성(陝西省)에서 인연을 맺은 사람이다. 위정성(俞正聲)과 왕치산(王岐山)이 대표적이다. 둘째는 같은 학교 및 거주지 출신자다. 류허와 천시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는 같은 근무지 출신자다. 허베이성에서 인연을 맺은 리진수, 푸젠성 근무 시절 함께 일했던 허리핑·차이치·황쿤밍, 저장성 근무 시절 측근이었던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당서기와 리창(李強) 장쑤성 당서기, 상하이시 근무 시절 인연을 맺은 한정(韓正) 상하이시 당서기와 덩쉐샹이 대표적이다(Li, 2016: 301-349).

시진핑의 자기 세력 충원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표 4〉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인사 변동된 장차관급 인사 67명의 성향을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67명 중에서 31명(67명의 46.3%)이 시진핑 세력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는 시진핑이 2017년 10월 공산당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실행된 정기적인 인사교체를 이용하여 자파 세력을 대규모로 충원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다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시진핑과 직접 인연이 있는 ‘시진핑 사람’(17인)이고, 다른 하나는 시진핑 측근과 인연이 있는 ‘시진핑 측근의 사람’(14인)이다. 후자 중에서는 ‘왕치산 사람’이 가장 많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왕치산 사람’은 모두 10인이다. 여기에는 천원칭(陳文淸) 국무원 국가안전부 부장, 황수셴(黃樹賢) 민정부 부장, 추이핑(崔鵬)·샤오페이(肖培)·천샤오장(陳小江) 감찰부 부부장, 양샤오차오(楊曉超) 중앙기위 비서장, 린뮈(林鏞) 간쑤성 당서기 등이 포함된다(Mai, 2017).

시진핑의 세력 확충을 장쩌민 및 후진타오와 비교하면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시진핑보다는 후진타오가 더욱 적극적으로 자파 세력을 충원했고, 그 결과 중앙과 지방의 요직에 공청단파가

시진핑 세력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분포했다는 점이다. 공청단파의 충원을 보여주는 <표 2>에 따르면, 2002년에 공청단 출신의 인사 중에서 중앙과 지방의 장차관급 직위에 있던 사람은 83인이었고, 2006년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106인으로 증가했다. 시진핑이 충원한 인사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가 없어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규모로 볼 때 시진핑 세력은 공청단파에 비해 훨씬 적다. 참고로 상하이방 출신으로 장차관급 직위에 있던 사람은 1994년 무렵 30여 명, 1990년대 말에는 50여 명이었다. 이를 보면, 시진핑의 자기 세력 충원은 장쩌민 시기와 비슷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군중노선 활동'과 반부패운동

시진핑도 전임 총서기와 마찬가지로 출범하자마자 정풍운동을 시작했다. 이는 정풍운동이 이미 전 정부에서 결정되었음을 의미한다. 2012년 공산당 18차 당대회에서 퇴임하는 후진타오가 정치보고를 했는데, 이때 새로운 정풍운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 발표되었다. 이에 입각하여 2013년 봄부터 '군중노선 교육 실천 활동'(약칭 '군중노선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이와 동시에 반부패운동도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시진핑은 장쩌민과 후진타오처럼 이를 이용하여 권력을 공고하게 다졌던 것이다.

1) 군중노선 활동

공산당은 2013년 4월에 '사풍(四風: 네 가지 풍조), 즉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군중노선 활동을 1년 동안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운동의 목적은 '사풍'을 해결함으로써 당 규율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중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위 간부가 솔선수범해야 하기 때문에 과장급(縣處級) 이상의 영도간부가 중점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정풍운동을 지도하기 위해 '중앙당 군중노선 교육실천 활동 영도소조'가 결성되어, 류윈산(劉雲山: 정치국 상무위원)이 소장, 자오러지(趙樂際: 조직부장)와 자오홍주(趙洪

祝: 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가 부조장을 맡았다. 또한 정풍운동의 감독을 위해 45개의 감독조가 지방에 파견되었다. 특이한 점은, 7인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지역을 할당받아 직접 감독했다는 사실이다. 시진핑은 허베이성, 리커창(李克強)은 광시성, 장더장(張德江)은 장수성, 위정성은 간수성, 류위산은 저장성, 왕치산은 헤이룽장성, 장까오리(張高麗)는 쓰촨성을 맡았다(조영남, 2014: 3-5).

추진 방식은 이전 정풍운동과 같은 하향식이다. 1단계로 중앙 당정기관과 성급 지방 당정기관, 2단계로 성급 이하 단위가 정풍운동을 진행한다. 절차도 전과 같이 세 개의 고리로 구성된다. 첫째는 학습 교육과 의견 청취다. 약 2개월에 걸쳐 집중 학습이 이루어지고, 간부 개인과 기관의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둘째는 문제 파악과 비판이다. 영도간부들은 민주생활회를 개최하여 비판과 자기비판을 진행한다. 셋째는 문제 시정과 제도 수립이다. 각 간부와 조직은 제기된 문제의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제 해결 상황을 상부에 보고하고 공개 발표해야 한다(中共中央, 2014).

1단계 정풍운동의 진행 상황을 보도한 중국 언론에 따르면, 이번에는 민주생활회가 매우 진지하게 추진되는 것 같다. “진검승부를 한다”,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뛰고 진땀이 난다”는 표현은 이런 상황을 보여준다. 예컨대 시진핑은 2013년 9월에 4일간 진행된 허베이성 공산당 위원회의 민주생활회에 직접 참여했다. 이때 민주생활회에서는 당서기가 공산당 성위원회 전체 상황에 대한 검토 보고를 발표했고, 이어서 당위원회 위원들이 개인의 검토 보고를 발표했다. 이를 기초로 당서기를 포함한 위원 간 상호 비판과 자기비판이 이루어졌다. 이후에 중앙에서 파견된 감독조 조장의 평가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시진핑의 평가가 있었다. 이처럼 시진핑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민주생활회는 한가한 ‘토크쇼’가 될 수 없었다. 다른 지역과 기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민주생활회가 개최되었다(조영남, 2014: 5-6).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2단계 군중노선 활동이 전개되었다. 2단계 운동의 중점 대상은 지방의 당정간부였다. 공식 통계에 의하면, 1단계 운동에는 274개의 중앙 직속 당정기관, 국유기업, 군중단체, 사업단위와 100

만 여개의 공산당 조직에서 모두 1,700만 명의 당원이 참여했다. 반면 2단계 운동에는 330만여 개 기층 공산당 조직에서 모두 6,900만여 명의 당원이 참여했다. 또한 이번에도 7인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1단계 운동에서 할당받은 각 지방을 직접 방문하여 정풍운동을 지도했다. 예를 들어, 시진핑은 2014년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허난성 란카오현(蘭考縣)을 방문했고, 두 번째 방문에서는 현 당위원회가 개최한 민주생활회에 참석했다(조영남, 2015: 25-26).

시진핑은 균중노선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공산당은 성과를 통계 수치로 발표했다. 예를 들어, 관료주의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모두 13만 7천 건의 각종 인허가 사항이 취소되거나 사회로 이전되었다. 각종 회의와 문건도 각각 24.6%와 26.7%가 줄어 형식주의가 줄었다. 관용차량은 11만 4천 대가 정리되었고, 당정기관의 사무실 공간은 2,227만 평방미터가 축소되었으며, 출장 등에 쓰이는 당정간부의 경비도 530억 위안(元)이 절약되는 등 사치풍조의 퇴치에도 큰 성과가 있었다. 그밖에도 도박과 관련된 당정간부 7,162인, 10만 위안(元) 이상의 선물 수령자 2,550인, 준조세 등의 부당 징수자 8,519인이 처벌받았고, 기업 겸직 간부 6만 3천 명도 정리되었다(조영남, 2015: 27).

정풍운동은 끝났지만 유사한 학습활동은 계속되었다. 2015년에는 영도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삼엄삼실(三嚴三實)’(세 가지의 엄격함과 견실함) 활동이 전개되었다. 영도간부는 수신(修身), 권력사용, 자기 규율에 엄격해야 하고(‘삼엄’), 일도모, 창업(創業), 사람됨에서 견실해야 한다(‘삼실’)는 것이다. 그러나 정풍운동과 달리 이번 활동은 단계를 나누거나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실시되었다. 방식은 하향식으로 공산당 중앙의 지도하에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각 지역의 당 서기는 모범적으로 관련 주제를 강의하고, 당원들은 민주생활회와 조직생활회를 활용하여 전문적으로 학습했다. 또한 학습과 문제 시정을 동시에 추진하여 당 규율을 엄격히 하고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았다(조영남, 2016c: 34-36).

2016년에는 ‘양학일주(兩學一做: 두 가지 학습과 한 가지 되기)’ 학습활동이 전개되었다. ‘양학’은 당헌·당규와 시진핑 총서기의 연설 학습, ‘일주’는 이를 통해 당원 자격이 충분한 당원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산당 중앙 판공

청은 이를 위해 2월에 실행 방안을 하달했다. 방식은 이전 운동과 같았다. 학습활동은 하향식으로 조직되며, 중앙 조직부가 주도하고 중앙기위, 중앙선전부, 중앙당교가 협력하여 진행했다. 학습은 당소조나 당지부가 조직한 조직생활회나 기타 학습모임에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자격에 미달하는 당원은 당현과 당규에 따라 처리되었다. 이번 활동도 삼엄삼실 활동처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정풍운동이 아니라 일상적인 학습활동이었다(조영남, 2017: 43-44).

이처럼 시진핑은 후진타오와 마찬가지로 한 번의 대규모 정풍운동과 계속된 학습활동을 매년 실시했다. 운동의 목적과 절차도 같았다. 단 시진핑의 정풍운동이 훨씬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후진타오는 국내외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정풍운동을 계획대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없었다. 반면 시진핑은 상황이 달랐다. 그래서 당정간부들이 준수해야 하는 ‘8항 규정’은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으로 철저하게 집행되면서 4년 반 동안 17만 건(매일 평균 10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고, 관련자들이 처벌받았다(「形成」, 2017). ‘사풍’ 해결을 위한 군중노선 활동도 중앙부터 지방까지 매우 강력하게 추진되었다(Miller, 2013; Zhu et al., 2017). 특히 정풍운동이 반부패운동과 함께 추진되면서 그 위력이 더욱 증가했다.

2) 반부패운동

시진핑의 반부패운동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하게 전개되었다(Wedeman, 2017). 이런 면에서 시진핑은 장쩌민이나 후진타오와 달리 부패 척결에 정권의 사활을 걸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동시에 이것은 시진핑이 처한 국내외 상황이 두 명의 전임 지도자보다 좋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어쨌든 반부패운동의 성과로 인해 시진핑은 다른 어떤 총서기보다 강력한 지도자라는 평가를 얻게 되었다. 물론 그가 현재 12개의 보직을 맡고 있다는 사실도 이런 평가가 나온 중요한 배경이다.

실제로 반부패운동을 통해 전보다 많은 고위급 인사가 처벌되었다. 먼저, 전과 다르게 국가급 지도자가 구속되었다. 2014년에는 수릉(蘇榮) 전국정협 부주석과 쉬차이허우 중앙군위 부주석, 저우융캉 정치국 상무위원, 링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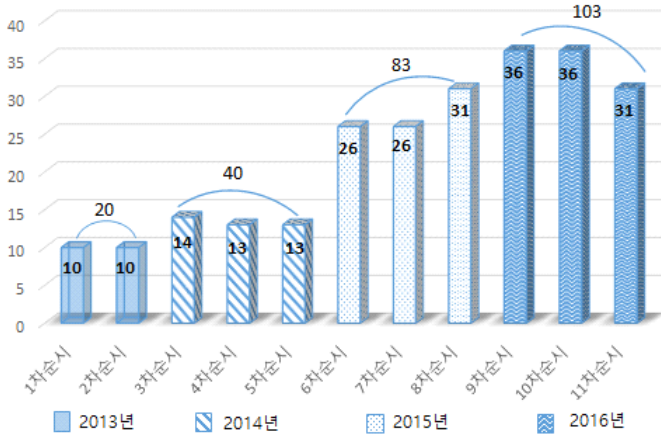
〈표 5〉 장쩌민 시기의 반부패운동에서 처벌 받은 당원(1987~2002년)

시기	조사 받은 당원(인)	처벌 받은 당원(인)		
1993-97년 반부패운동	731,000	규율처분	669,300	
		제명	121,500	
		처벌 받은 영도간부	장관급	78
			국장급	1,673
과장급	20,295			
1998-2002년 반부패운동*	861,917	규율처분	846,150	
		제명	137,711	
		처벌 받은 영도간부	장관급	98
			국장급	2,422
과장급	28,996			

자료: Cho(2001: 65); 中共中央紀律檢查委員會(2005: 52).

정치국원 겸 중앙판공청 주임이 구속되었다. 2015년에는 귀보슝 중앙군위 부주석이 부패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중에서 저우융강, 쉬차이허우, 귀보슝의 구속은 “충격”이었다. 지금까지 정치국 상무위원과 중앙군위 부주석은 형사 처벌의 예외였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이들을 구속함으로써 부패를 저지르면 누구든지 성역 없이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남겼다.

시진핑의 강력한 반부패운동은 장차관급 고위 간부의 처벌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중국이 공식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6년 말까지 4년 동안 모두 240인의 장차관급 간부가 부패 혐의로 처벌되었다. 이는 매년 60인이 처벌된 셈이다. 같은 기간 동안 일반 당원과 공무원은 모두 119만 명이 부패 혐의로 처벌되었고, 해외에 도피한 부패 사범도 모두 3천 명이 본국에 소환되었다(形成, 2017). 이를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기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표 5〉가 보여주듯이, 장쩌민 시기에는 매년 17.6인의 장차관급 간부가 부패 혐의로 처벌받았다. 반면 앞에서 보았듯이 후진타오 시기에는 매년 8인이 처벌받았다. 즉 시진핑 시기에는 장쩌민 시기와 비교하면 약 3배, 후진타오 시기와 비교하면 약 7배나 많은 장차관급 인사가 부패 혐의로 처벌받았다.



자료: 조영남(2017a, 29).

〈그림 1〉 중앙 순시조가 감독한 지방과 기관의 증가(2013~2016년)

또한 시진핑 시기의 반부패운동은 더욱 제도화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중앙 순시조의 감독이 대표적이다. 부패 사건의 60~70%는 순시조가 적발했다(王岐山, 2017). 〈그림 1〉에 따르면, 2013년에는 중앙 순시조가 2회에 걸쳐 20개 지역을 조사했다. 그런데 2014년에는 3회에 걸쳐 40개 지역과 기관, 2015년에는 3회에 걸쳐 83개 지역과 기관, 2016년에는 3회에 걸쳐 103개 지역과 기관을 조사했다. 이처럼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증가했다. 2017년 상반기에는 12차 중앙 순시조의 감독이 진행되어 37개 기관과 지역이 감독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지난 4년 반 동안의 활동을 통해 중앙이 관리하는 277개 기관과 지역에 대한 감독이 모두 완료되었다(中紀委, 2017). 이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4년 동안 240인이거나 되는 장차관급 인사가 처벌된 데에는 중앙 순시조의 감독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 2017년 7월에 쑤정차이(孫政才) 충칭시 당서기가 면직된 것도 중앙 순시조의 2회에 걸친 감독에서 부패 혐의가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시진핑은 집권 원년부터 정풍운동과 반부패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진핑은 자신이 추진하는 각종 개혁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시진핑에게 정풍운동과 반부

패운동은 단순히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이 아니었다. 즉 그것은 동시에 개혁 반대 세력의 저항을 물리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조영남, 2015a: 143; Wang and Zeng, 2016: 474-475). 또한 이런 이유로 시진핑의 강력한 정풍운동과 반부패운동은 시진핑 개인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정치 엘리트의 합의의 결과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정치 엘리트의 합의가 없었으면 이런 식의 강력한 운동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3. ‘중국의 꿈’과 ‘사개전면’

시진핑도 후진타오처럼 자신의 국정 이념을 공산당의 지도이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저서나 연설문의 출간을 놓고 볼 때, 시진핑은 전임자들보다 더욱 적극적이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개인을 선전한 경우는 화궈핑 이후에는 없었을 것이다. 당시에 화궈핑은 부족한 권위를 만회하기 위해 ‘화주석(華主席) 선전’을 중점 정책으로 결정하고 각종 전기와 정책 문건을 대규모로 출간했다(조영남, 2016a: 242-249).

〈표 6〉은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중국 내에서 시진핑과 관련하여 출판된 저작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이것은 중국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주요 도서만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보다 많을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22권의 책이 출간되었다. 이 중에서 네 권은 시진핑 본인이 집필할 것이고, 다섯 권은 다른 사람이 시진핑에 대해 쓴 것이다. 나머지 13권은 각종 주제에 대한 시진핑의 글이나 연설문을 편집한 것이다. 이 중에서 2014년에 외문출판사에서 출판된 『시진핑 국정을 말하다(習近平談治國理政)』가 가장 유명하다. 이 책은 2017년 7월까지 한국어를 포함하여 전 세계 21개 언어로 번역되어 160여 개 지역에서 642만 권이 발행되었다. 시진핑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노력한 결과다.

‘시진핑의 이념’을 공산당의 지도이념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2015년에 들어서 본격화되었다. ‘사개전면(四個全面: 네 가지의 전면)’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시진핑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국정 목표, 이를 추진하는 방식, 이

〈표 6〉 시진핑 관련 저작 일람표(2013~2017년 8월)

분류	저작
본인 저작	『幹在實處 走在前列: 推進浙江新發展的思考與實踐』(中央黨校出版社, 2013)
	『之江新語』(浙江人民出版社, 2013)
	『擺脫貧困』(福建人民出版社, 2014)(1992년 초판 발행)
	『知之深·愛之切』(河北人民出版社, 2015)
타인 저작	『平易近人: 習近平的語言力量』(上海交通大學出版社, 2014)
	『習近平用典』(人民日報出版社, 2015)
	『平易近人: 習近平的語言力量(軍事卷)』(上海交通大學出版社, 2017)
	『習近平講故事』(人民日報出版社, 2017)
	『習近平的七年知青歲月』(中共中央黨校出版社, 2017)
정책 연설 시리즈	『習近平關於實現中華民族偉大復興的中國夢論述摘編』(中央文獻出版社, 2013)
	『習近平談治國理政』(外文出版社, 2014)
	『習近平關於全面深化改革論述摘編』(中央文獻出版社, 2014)
	『習近平關於協調推進“四個全面”戰略布局論述摘編』(中央文獻出版社, 2015)
	『習近平關於全面依法治國論述摘編』(中央文獻出版社, 2015)
	『習近平關於全面從嚴治黨論述摘編』(中央文獻出版社, 2016)
	『習近平關於全面建成小康社會論述摘編』(中央文獻出版社, 2016)
	『習近平關於科技創新論述摘編』(中央文獻出版社, 2016)
	『習近平總書記系列重要講話讀本』(人民出版社, 2016)
	『習近平關於嚴明黨的紀律和規矩論述摘編』(中央方正出版社, 2016)
	『習近平關於社會主義經濟建設論述摘編』(中央文獻出版社, 2017)
	『以習近平同志為核心的黨中央治國理政新理念新思想新戰略』(人民出版社, 2017)
	『習近平論強軍興軍』(解放軍出版社, 2017)

자료: 亞馬遜(amazon.cn)(www.amazon.cn)(검색일: 2017. 8. 5)

를 보장하고 지도하기 위한 방침을 담고 있다. 국정 목표를 표현한 것이 ‘전면적 소강사회 완성’이다. 이는 시진핑이 제시한 ‘중국의 꿈’의 1단계 목표, 즉 2021년까지 2010년의 국내총생산(GDP)과 주민소득을 두 배로 높여 전면적 소강사회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말한다. 추진 방식을 표현한 것이 ‘전면적 개혁 심화’와 ‘전면적 의법치국’이다. 이를 보장하고 지도하는 방침이 ‘전

면적 당 엄격 관리'다. 이는 '공산당만이 당을 관리한다'는 기본 방침을 재천명한 것이다.

'사개전면'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위상을 갖는가라는 점이다. 중국 언론과 공산당의 설명을 보면, '사개전면'의 위상이 점차 높아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3월 『광명일보』의 한 사설은 '사개전면'을 "국가통치의 기본전략"으로 규정했다. 또한 같은 해 6월 『광명일보』의 다른 사설은 '사개전면'을 "국가 거버넌스(治理)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전략적 배치"로 규정했다. 이는 공산당의 공식 입장이 되었다. '사개전면'에 대한 이런 규정과 함께 이에 대한 학습 선전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2016년에 '양학일주' 학습활동이 전개되면서 당원과 국민들은 시진핑 저서를 집중적으로 학습해야만 했다.

이 같은 시진핑의 개인 선전에 대해 홍콩의 한 언론인은 중국이 문화대혁명 시대의 마오쩌둥 개인숭배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未普, 2017). 일부 국내외 언론은 2017년 10월에 개최되는 공산당 19차 당대회에서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에 이어 '시진핑 사상'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Gan, 2017a; Wong, 2017). 실제로 19차 당대회에서 <당헌>이 개정되어 '시진핑 사상'이 삽입되었다. 이는 시진핑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장쩌민과 후진타오 등 전임 총서기가 모두 했던 일이다. 다만 전임자들과 달리 시진핑은 자신의 이름을 딴 사상을 <당헌>에 게재함으로써 전임자들보다 더 높은 이념적 권위를 갖게 되었다.

V. 결론

후진타오와 시진핑은 매우 유사한 과정을 통해 권력을 공고히 다졌다. 후진타오는 2002년 공산당 16차 당대회에서 총서기에 선출된 직후부터 공청단 출신의 인사를 중앙과 지방의 요직에 대규모로 충원했다. 이렇게 해서 공청단파가 중요한 파벌로 등장했다. 또한 그는 공청단파 지지자를 활용하여 삼

개대표 활동이라는 정풍운동을 전개하여 총서기의 권위를 높여갔다. 동시에 반부패운동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고 공청단파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상하이방도 약화시켰다. 마지막으로 과학적 발전관이라는 새로운 통치이념을 제기하여 2007년 공산당 17차 당대회에서 지도이념으로 승격시킴으로써 이념적 권위를 획득했다. 그 결과 2007년 공산당 17차 당대회 이후에 후진타오는 명실상부한 총서기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시진핑도 유사했다. 2012년 공산당 18차 당대회에서 총서기가 된 후 그는 자파 세력을 중앙과 지방의 요직에 충원했다. '시진핑 사람'은 그와 같은 학교와 거주지 출신자,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의 핵심 측근의 사람(예를 들어, '왕치산 사람')도 포함되었다. 이렇게 지지 세력을 결집한 이후 시진핑은 이들을 활용하여 군중노선 활동이라는 정풍운동과 반부패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를 통해 총서기의 권위를 높이고, 자신의 개혁에 반대하는 저항 세력을 제압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저우융캉 등 국가급 지도자를 처벌함으로써 그의 권력은 막강한 것처럼 보였다. 마지막으로 시진핑은 2015년 무렵부터 '중국의 꿈'과 '사개전면'을 지도이념으로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런 노력은 2017년 공산당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사상'이 〈당헌〉에 게재됨으로써 결실을 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개혁기 변화된 중국의 엘리트 정치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먼저, 덩샤오핑 이후(Post-Deng) 시기의 지도자들은 일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권력을 공고화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총서기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개혁기에 '권력승계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듯이, '권력 공고화의 제도화'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록 출범 초기에는 권력기반이 취약하여 총서기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것 같지 않았던 지도자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권력 공고화를 통해 충분히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면 관계상 이 논문에서는 분석하지 않았지만, 권력 공고화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는 장쩌민이었다. 그는 '자파 세력의 충원 → 정풍운동과 반부패운동의 전개 → 새로운 지도이념의 확정'이라는 공식을 보여준 인물이다(조영남, 2017b). 후진타오와 시진핑은 이를 학습하여 실

행했던 것이다.

또한 ‘약한 총서기’ 후진타오, ‘강한 총서기’ 시진핑이라는 평가는 겉으로 드러난 일부 현상만을 강조하여 실제 상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견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지 세력의 충원이나 통치이념의 공산당 지도이념화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후진타오는 결코 ‘약한 총서기’가 아니었다. 그는 장쩌민이나 시진핑보다 더욱 빠르고 대규모로 자파 세력(즉 공청단파)을 중앙과 지방의 요직에 충원했다. 그 결과 2002년 무렵부터는 공청단파가 최대의 정치 파벌로 등장했다. 뿐만 아니라 후진타오는 집권 5년 만에 과학적 발전관이라는 자신의 집권이념을 공산당의 지도이념으로 승격시키는데 성공했다. 다만 집권1기에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 국무원, 중앙군위에서 소수파 지도자였기 때문에 다른 세력과의 협력을 통해 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어려운 국내의 상황으로 인해 정풍운동과 반부패운동을 계획대로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그에게 ‘약한 총서기’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마지막으로 시진핑의 권력을 과대평가하여 집단지도 체제가 해체되고 일인지배 체제가 등장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일부 중국 전문가와 언론은 시진핑을 장쩌민 및 후진타오와 비교 분석하지 않고 그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모든 일이 시진핑 시기에만 나타난 현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보았듯이, 시진핑이 걸어온 권력 공고화 과정은 후진타오의 길과 다르지 않다. 또한 시진핑이 추진한 권력 공고화의 내용, 즉 자파 세력의 충원, 정풍운동과 반부패운동의 실시, 자기 이념의 공산당 지도이념화는 후진타오가 추진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 이런 점에서 시진핑은 장쩌민, 후진타오와 같은 맥락에 있는 덩샤오핑 이후 지도자의 한 사람일 뿐이다. 다만 시진핑이 처한 유리한 국내의 상황으로 인해 전임자보다 더 강력하게 정풍운동과 반부패운동을 추진했고, 그 결과 더 명확한 성과를 얻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질적인 차이’라기보다는 ‘양적인 차이’에 불과하다. 최소한 공산당 19차 당대회(2017년)가 끝난 현재의 시점에서 보아도 이는 변함이 없다(조영남, 2018).

그러나 우리가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의 권력 ‘강도’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제 권력 구조와 운영에 대한 세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영도소조의 조직과 운영,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운영 실태, 중요 기관(예를 들어, 중앙 서기처, 판공청, 중앙기위, 정법위원회, 조직부, 선전부) 간의 역학관계와 운영을 보아야 한다. 덩샤오핑 시기, 장쩌민 시기, 후진타오 시기, 시진핑 시기에 이들 간에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실제 정책 결정 과정도 보아야 한다. 국내 정책과 대외 정책이 결정될 때 어느 기관의 누가 주도권을 잡는지, 그 과정에서 실제로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나 개인이 누구인지 보아야 한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분석한 이후에야 우리는 집단지도 체제의 해체 여부나 '새로운 독재자'의 출현 여부에 대해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이후의 중요한 연구 과제다.

투고일자: 2017-09-19 심사일자: 2017-10-12 게재확정: 2017-11-07

참고문헌

- 신경진. 2015. 「동향·친구·측근: 시진핑 인맥이 권력 장악」, 『중앙일보』 1월 12일. <http://www.joins.com>(검색일: 2015. 1. 12).
- 양갑용. 2014. 「시진핑 시대 중앙영도소조의 역할 변화 가능성 연구」. 『중국연구』 60권. pp. 341-373.
- 이정남. 2017. 「시진핑 권력 강화와 중국 권위주의 체제의 변화: 경쟁적 독재에서 확립된 독재로의 전환인가?」. 『중소연구』 41권 1호. pp. 7-39.
- 조영남. 2006.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 정치』. 파주: 나남.
- _____. 2009. 『21세기 중국이 가는 길』. 파주: 나남.
- _____. 2013. 『중국의 꿈: 시진핑 리더십과 중국의 미래』. 서울: 민음사.
- _____. 2014. 「2013년 중국 정치의 현황과 향후 과제」.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2013 중국정세보고』. pp. 1-43.
- _____. 2015a. 「시진핑 '일인체제'가 등장하고 있는가?」. 『국제·지역연구』 24권 3호. pp. 127-153.
- _____. 2015b. 「2014년 중국 정치의 현황과 전망」.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2014 중국정세보고』. pp. 9-67.
- _____. 2016a. 『개혁과 개방: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1(1976~1982년)』. 서울: 민음사.
- _____. 2016b. 『파벌과 투쟁: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2(1983~1987년)』. 서울: 민음사.
- _____. 2016c. 「2015년 중국 정치의 현황과 전망」.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2015

- 중국정세보고』. pp. 9-78.
- _____. 2017a. 「2016년 중국 정치의 현황과 전망」.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2016 중국정세보고』. pp. 11-85.
- _____. 2017b. 「중국 최고 지도자의 권력 공고화: 장쩌민의 사례」. 『중소연구』 41권 3호.
- _____. 2018. 「2017년 중국 정치의 현황과 전망」.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2017중국정세보고』(근간).
- Bo, Zhiyue. 2007. *China's Elite Politics: Political Transition and Power Balancing*. Singapore: World Scientific.
- _____. 2010. *China's Elite Politics: Governance and Democratization*. Singapore: World Scientific.
- Brown, Kerry. 2012. *Hu Jintao: China's Silent Ruler*. Singapore. World Scientific.
- Chan, Minnie. 2017. "How Xi Jinping has taken on multiple roles and amassed unrivalled power in China." *South China Morning Post*. January 27. <http://www.scmp.com>(검색일: 2017. 2. 7).
- Cho, Young Nam. 2001. "Implementation of Anticorruption Policies in Reform-Era China: The Case of the 1993-97 Anticorruption Struggle." *Issues & Studies*, 37(1): 49-72.
- Ewing, Richard Daniel. 2003. "Hu Jintao: The Making of a Chinese General Secretary." *China Quarterly*, 173: 17-34.
- Fewsmith, Joseph. 2003. "The Sixteenth National Party Congress: The Succession that Didn't Happen." *China Quarterly*, 173: 1-16
- _____. 2005. "CCP Launches Campaign to Maintain the Advanced Nature of Party Members." *China Leadership Monitor*, 13.
- Gan, Nectar. 2017a. "Being immortal: Xi Jinping's power play to reach the same status as Mao Zedong." *South China Morning Post*, 27 March. <http://www.scmp.com>(검색일: 2017. 3. 28).
- _____. 2017b. "What to expect from Xi Jinping's Communist Party congress power play." *South China Morning Post*, 7 August. <http://www.scmp.com>(검색일: 2017. 8. 7).
- Huang, Cary. 2016. "Inside Xi Jinping's inner circle." *South China Morning Post*, 2 March. <http://www.scmp.com>(검색일: 2016. 3. 3).
- Ji, You. 2002. "The Supreme Leader and the Military." In Jonathan Unger (ed.). *The Nature of Chinese Politics: From Mao to Jiang*. Armonk: M.E. Sharpe, 2002. pp. 274-296.
- Lai, Hongyi Harry. 2005. "External Policymaking under Hu Jintao: Multiple Players and Emerging Leadership." *Issues & Studies*, 41(3): 209-244.
- Lam, Willy Wo-Lap. 1999. *The Era of Jiang Zemin*. Singapore: Prentice-Hall.
- Lampton, David M. 2014. *Following the Leader: Ruling China, from Deng Xiaoping to Xi Jinp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ee, Sangkuk. 2017. "An Institutional Analysis of Xi Jinping's Centralization of Power."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6(105): 325-336.
- Li, Cheng. 2016. *Chinese Politics in the Xi Jinping Era: Reassessing Collective Leadership*.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Mai, Jun. 2017. "Why China's anti-graft watchdog is a stepping stone to higher office." *South China Morning Post*, 11 June. <http://www.scmp.com>(검색일: 2017. 6. 12).
- Miller, Alice. 2009. "Leadership Presses Party Unity in Time of Economic Stress." *China Leadership Monitor*, 26.
- _____. 2013. "The Road to the Third Plenum." *China Leadership Monitor*, 42.
- Shambaugh, David. 2008. *China's Communist Party: Atrophy and Adaptation*.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 Wang, Zhengxu and Jinhan Zeng. 2016. "Xi Jinping: The Game Changer of Chinese Elite Politics?" *Contemporary Politics*, 22(4): 469-486.
- Wang, Zhengxu. 2006. "Hu Jintao's Power Consolidation: Groups, Institutions, and Power Balance in China's Elite Politics." *Issues & Studies*, 42(4): 97-136.
- Wedeman, Andrew. 2017. "Xi Jinping's Tiger Hunt: Anti-Corruption Campaign or Factional Purge?" *Modern China Studies*, 24(2): 35-94.
- Wong, Chun Han. 2017. "China's Propaganda Machine Elevates Xi to Socialist Thinker-in-Chief." *Wall Street Journal*, June 1. <http://www.wsj.com>(검색일: 2017. 5. 2).
- Zheng, Yongnian. 1997. "Power and Agenda: Jiang Zemin's New Political Initiatives at the CCP's Fifteenth Congress." *Issues & Studies*, 33(11): 35-57.
- _____. 2005. "The 16th National Congres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stitutionalization of Succession Politics." In Weixing Chen and Yang Zhong (eds.), *Leadership in A Changing China*. New York: Palgrave, 2005. pp. 15-36.
- _____. 2010.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s Organizational Emperor: Culture, Reproduction and Transformation*. London: Routledge.
- Zhu, Jiangnan et al. 2017. Eating, Drinking, and Power Signaling in Institutionalized Authoritarianism: China's Antiwaste Campaign Since 2012."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6(105): 337-352.
- 「72名」. 2012. 「72名落馬省部級官員調查: 8成蛇腐敗後仍獲晉升」. 『新浪網』 10月 16日. <http://news.sina.com.cn>(검색일: 2017. 8. 29).
- 「中紀委」. 2017. 「中紀委解讀一屆任期内重要巡視全覆蓋如何實現」. 『人民網』 6月 11日. <http://www.people.com.cn>(검색일: 2017. 6. 12).
- 「形成」. 2017. 「形成反腐敗^鬥爭壓倒性態勢: 黨的十八大以來全面嚴治黨成就綜述」. 『求是網』 8月 17日. <http://www.qstheory.cn>(검색일: 2017. 8. 17).
- 郭德宏 外. 1999. 『黨和國家重大決策的歷程(第二卷)』. 北京: 紅旗出版社.
- 寇健文. 2007. 「胡錦濤時代團系幹部的崛起: 派系考量vs.幹部輸送的組織任務」. 『遼景基金會季刊』 8卷 4期. pp. 49-95.

- _____. 2011. 『中共菁英政治的演變: 制度化與權力轉移 1978-2010』. 臺北: 五南圖書出版社.
- 未普. 2017. 「中央各部向習近平集體表忠, 事九大保衛戰拉開序幕」. 『明鏡網』 5月 3日. <http://www.mingjingnews.com>(검색일: 20017. 5. 4).
- 本書編寫組. 2005. 『〈中共中央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15個5年規劃的建議〉輔導讀本』. 北京: 人民出版社.
- 宋曉明. 1996. 『中國黨建史(1921-1949)』. 北京: 黨建讀物出版社.
- 王岐山. 2017. 「巡視是黨內監督戰略性制度安排彰顯中國特色社會主義民主監督優勢」. 『人民網』 7月 17日. <http://www.people.com.cn>(검색일: 2017. 7. 17).
- 中共中央紀律檢查委員. 2005. 「中共中央紀律檢查委員會向黨的第十六次全國代表大會的工作報告」. 新華月報 編. 『十六大以來黨和國家重要文獻選編上(1)』. 北京: 人民出版社. pp. 49-68.
- 中共中央. 2004. 「中共中央關於加強黨的執政能力建設的決定」. 本書編寫組. 『〈中共中央關於加強黨的執政能力建設的決定〉輔導讀本』. 北京: 人民出版社. pp. 1-39.
- _____. 2006. 「中共中央關於在全黨開展以實踐‘三個代表’重要思想為主要內容的保持共產黨員先進性教育活動的意見」. 中共中央文獻研究室, 『十六大以來重要文獻選編(中)』.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pp. 413-423.
- _____. 2007. 「中共中央關於構建社會主義和諧社會若干重大問題的決議」.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十六大以來重要文獻選編(下)』.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pp. 648-671.
- _____. 2009. 「中共中央關於在全黨開展深入學習實踐科學發展觀活動的意見」.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十七大以來重要文獻選編(上)』.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pp. 534-564
- _____. 2014. 「中共中央關於在全黨深入開展黨的群眾路線教育實踐活動的意見」.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十八大以來重要文獻選編(上)』.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pp. 283-292.
- 中共中央黨史研究室. 1991. 『中國共產黨歷史(上卷)』. 北京: 人民出版社.
- _____. 2011. 『中國共產黨歷史: 第一卷(1921-1949)下冊』.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 _____. 2016. 『中國共產黨的九十年: 新民主主義革命時期』.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 中共中央辦公廳法規室 外. 2009. 『中國共產黨黨內法規選編(2001-2007)』. 北京: 法律出版社.
- 曾慶紅. 2006. 「在中央保持共產黨員先進性教育活動工作會議上的講話」.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十六大以來重要文獻選編(中)』.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06), pp. 559-574.
- 胡錦濤. 2016. 『胡錦濤文選(第2卷)』. 北京: 人民出版社.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Power Consolidation of Hu Jintao and Xi Jinping in China

Young Nam Cho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analyzes the power consolidation of Hu Jintao and Xi Jinping in terms of comparative perspective. For this, it investigates the meaning of power consolidation and rectification campaign. Then it delves into the concrete processes and results of power consolidation focusing on Hu Jintao and Xi Jinping in three aspects: the recruitment of corteges, implementation of rectification campaign, and establishment of new ideology. Hu Jintao and Xi Jinping as new generation leaders in reform era have been able to make power base solid by similar strategies and steps, and resultantly could exercise their power as general secretaries. In this sens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ower consolidation has made progress in the reform era, as di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ower succession.

Keywords: Hu Jintao, Xi Jinping, power consolidation, CYL faction, Shanghai gang, rectification campaign, anti-corruption campaign

